

특별도에 대한 열망이 제주를 흔들고 있다면

북갤러리 파파사이트
‘집과 기록: 인류세의 집’
개발의 이면 등 기록 작업
5인 사진가와 이야기 나눔
연계 다큐멘터리도 상영



인천을 배경으로 한 오석근의 '신흥동 일곱 주택'.

“인천의 일류도시에 대한 열망 즉 특별시가 되지 못하는 콤플렉스는 지역의 역사와 그 안의 고유한 가치를 인지할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며 도시의 주민이 이 도시의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는다.” 오석근 작가가 바라본 2018년 인천의 모습이었다. ‘인천’이 있는 자리에 ‘제주’를 대입해봐도 어색하지 않다. 어디에나 있는 도시의 얼굴을 따라가느라 바쁜 사정은 이곳도 다르지 않아서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있는 북갤러리 파파사이트가 제주를 물론 제주와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사진으로 기록한 작업과 마주하며 지금, 여기의 제주를 살피고 최선의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6

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집과 기록: 인류세의 집’ 프로젝트다.

인류세는 20만 년 전 등장한 인류가 화산 폭발, 빙하기와 맞먹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지게 되었음을 경고하기 위해 생겨난 말이다. 인류가 이 땅을 망칠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지닌 만큼 우리 스스로의 돌아봄을 통해 그 위기를 건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 역시 현재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살펴야 할 이들은 바로 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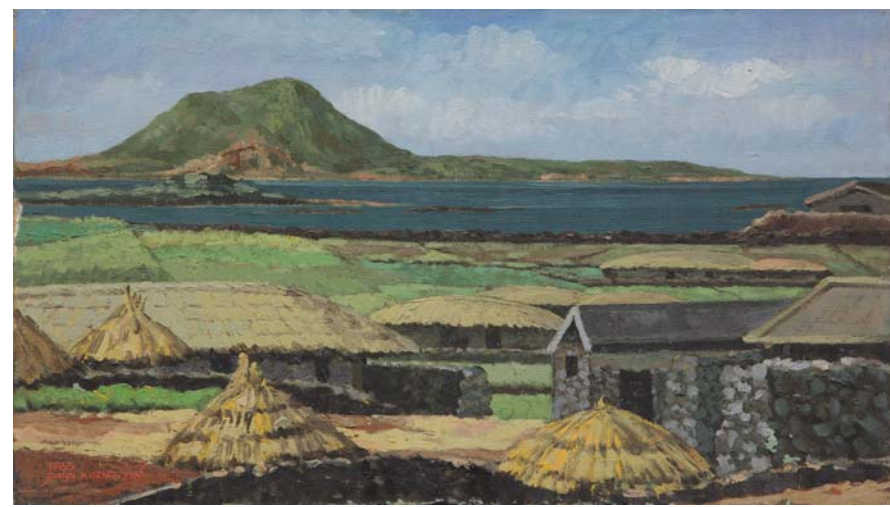
‘집과 기록’에서는 5개월 동안 다섯 개의 주제로 집에 얽힌 사연을 나눈다. 이 기간에는 다섯 차례의 포토그래피 토크와 여덟 편의 다큐멘터리 상영이 예정됐다.

토크 참여 작가와 주제는 인천을 배경으로 둔 오석근의 ‘신흥동 일곱 주택’ (6월 11일), 도시 재개발로 버

러진 개들의 경로를 관찰한 권도연의 ‘북한산’ (6월 18일), 아프리카와 아시아 난민들의 여정에 동행한 조진섭의 ‘떠나온 자들’ (7월 16일), 제주에서 사라지는 신당들을 담은 강건외의 ‘소박한 성소’ (9월 3일), 제주에서 오래된 집을 고쳐 정착하기까지 과정을 소개한 브랜다 백 선우의 ‘나의 제주 들집’ (10월 15일)이다. 이들 관객과의 대화는 매회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첫 회에는 제주의 탐라지에건축사사무소 권정우 소장도 함께한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홍영주 프로그래머는 “‘집’의 이야기를 통해 제주가 직면한 개발, 환경, 부동산, 기후위기 이슈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개발로 지워지고 사라지는 존재들을 향해 집의 지평을 1cm라도 넓히는 가능성을 위해 다섯 작가를 일일이 찾아가 프로젝트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섭외했다”고 밝혔다.

참가비 무료.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파파사이트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papasitejeju), 휴대전화 문자(010-2717-5821)를 이용하면 된다. 전선희기자



박광진의 '제주 마을' (1966, 캔버스에 유채).

수십 년 제주를 화폭에 담은 그였기에

제주현대미술관 분관 전시
저지 입주 작가 박광진 작품
‘옛 제주, 아름다운은 계속...’

시·군을 통합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전인 2006년 5월, 박광진 작가는 지금 그 명칭이 사라진 북제주군에 149점의 작품을 내놓는다. 기증품의 절반 이상은 1964년부터 제주를 소재로 그린 그림이었다. 이는 당시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조성 중이던 제주현대미술관으로 향했다.

제주현대미술관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입주 예술인 등으로 제주와 오랜 인연을 맺은 박광진 작가의 작품 세계를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이끈다. 이달 8일부터 미술관 분관에서 소장품을 활용해 진행되는 ‘옛 제주, 아름다운은 계속되어’ 전이다.

홍익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박 작가는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다. 사실주의 화풍에 근거해 작품 활동을 지

속해 온 한국 현대미술 1세대 작가다. 서울 출신인 그는 1964년 성산일출봉을 그리기 위해 처음 제주를 찾았다고 한다. 제주 풍경을 반한 그는 1980년부터 제주를 오가며 꾸준한 작업을 이어갔다.

이번 전시에는 야트막한 초가가 있는 동네 등 과거 제주의 모습을 포착한 그림들이 나온다. ‘제주 마을’ (1966), ‘해변’ (1974), ‘제주 뒷새오름’ (1988), ‘자연의 소리’ (2003) 등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려진 작품들이다.

제주의 아름다움을 현재가 아닌 과거에 두고 있는 전시 제목은 여운을 남긴다. 박 작가가 북제주군에 작품을 기증하면서 각종 개발로 제주의 아름다움이 파괴되는 모습에 분노를 느낌 만큼 안타깝다는 심경을 토로했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 제주를 그림에 담은 동안 작가는 그 대상인 자연의 변화를 가깝게 지켜봤을 터였다. 그래서 전시명이 ‘옛 제주처럼, 아름다운은 계속되어야 한다’를 줄인 말로 읽힌다. 전시는 내년 3월 27일까지 계속된다. 전선희기자

바흐 종교곡으로 만나는 바로크 음악

서귀포합창단 정기연주회
바흐 모테트·칸타타 선곡
현대 작곡가 브리튼도 연주

널리 연주된다.

최상윤이 지휘하는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이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바흐의 곡을 중심으로 제68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달 10일 오후 7시 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이 그 무대로 현악앙상블 ‘아마빌레 뮤직소사이어티’가 함께한다.

이날 서귀포합창단은 바흐의 작품을 세 곡 준비했다. 바흐가 남긴 6개

의 모테트 중 하나로 기교를 요하는 복잡한 음악적 구성을 지닌 ‘예수는 나의 기쁨(Jesu meine Freude BWV 227)’, 칸타타 ‘그리스도는 죽음의 포로가 되어도(Christ lag in Todes Banden BWV 4)’, ‘상투스 D장조’를 차례로 들려준다. 바흐에 앞서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 작곡가 브리튼(1913-1976)의 페스티벌 칸타타 ‘어린 양 안에서 기뻐하라(Rejoice in the Lamb Op.30)’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서귀포합창단은 이번 연주회의 레퍼토리를 알리면서 종교적 색

채가 느껴질 수 있는 곡목 원제를 소개하지 않았다. 곡목을 그대로 수록한 공연 포스터와 달리 칸타타 작품 번호 4, 모테트 작품 번호 227 등으로 홍보했다. 합창단 측은 “특정 종교 음악이 아니라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재조명하는 기회로 마련된 연주회여서 청중들이 그 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거쳐 이뤄진 일”이라고 했다.

공연 실황은 이달 28일 서귀포시와 제주도립 서귀포예술단 유튜브 채널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739-0641.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 실버 세대 ‘샤이니 스타’를 찾아라

도문화원연합회 지역 예선

지역 예선을 7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잇따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문화원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실버문화페스티벌은 중·노년층으로 구성된 문

화 관련 단체나 동아리의 공연을 통해 세대를 넘는 문화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로 7회째 전국 대회를 이어오는 동안 제주 지역 예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 예선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단체와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다. 50대도 참여할 수 있지만 구성원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코

로나19 여파로 출연 인원은 2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참여 분야는 양악, 국악, 무용, 연극 등이다.

예선은 한 곳에서 영상 촬영을 한 후 별도 심사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치른다. 예선 일정은 제주시 7월 16~17일 해변공연장 실내, 서귀포시는 7월 21일 김정문화회관으로 정해졌다. 문의 752-0302. 전선희기자

문화가 쏘지

서귀포문학작품 전국 공모

제주문학 속 신화와 유배인

사단법인 한국예총 서귀포지회가 서귀포문학작품을 전국 공모한다.

올해 5회째인 이번 공모는 서귀포시의 삶, 역사, 자연, 문화, 사람, 건설, 신화를 소재로 신진·기성작가 제한 없이 응모 가능하다. 시와 시조는 5편 이상, 소설은 1편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 200매 이내), 아동문학은 동시 5편 이상, 동화 1편(분량 제한 없음)이다. 응모작은 10월 12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다음 카페 서귀포예총(http://cafe.daum.net/seogwipo7) 참고.

제주문학에 나타난 제주 신화와 유배인들의 사연을 들여보자. 제주도 한라도서관이 도민을 대상으로 기획한 ‘제주문학 속 탐(耽)한 이야기’다.

한라도서관의 제주문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이번 강좌는 제주도 탐라문화연구원 김진철 특별연구원이 강사로 나선다. 이달 21일에는 ‘제주 신화를 탐(耽)한 이야기들’, 이달 28일에는 ‘유배인의 드라마틱한 삶을 만나라’를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잇따른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제주도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꽃나들이봄

문인환 / 박일용 / 이강화 / 이수동 / 이영수 / 최지윤

2021. 5. 6 THU ~ 6. 18 FRI

관람시간 안내

평일 | Open 11:00 | 주말 | Open 11:00 | 휴관 : 매주 월요일
Close 18:00 | (±, 日) | Close 17:00 | 문의 : 064-750-2543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F Gallery IED